

# 한국어 학술논문에 나타난 시상 표현의 담화적 기능 분석\*

이 슬 비\*\*

— < 次 例 > —

- I. 서론
- II. 논의의 전체
- III. 연구 방법
- IV. 분석 결과
- V. 결론

## I. 서론

시상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건의 시간상의 위치나 내적 양상에 관한 범주라고 여겨진다. 실제로 시제의 시간 지시 기능은 대부분의 텍스트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텍스트의 맥락에 따라 시상 표현이 단순 시간적 선후 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즉 시상 표현은 사건의 시간 관련 지시의 기능 외에 맥락에 따른 담화적 기능을 갖는다.

시제의 담화적 기능에 대한 일련의 연구는 소설에 대해서 김홍수(1989, 2005), 김정남(1994, 2010)에서 수행된 바 있으며, 소설 외에

---

\* 이 논문은 2015년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원

<http://dx.doi.org/10.17313/jkorle.2015.35.161>

비문학 텍스트에 대해서도 뉴스 보도문에 대한 문숙영(2007, 2008)과 국어 교과서의 비문학 텍스트에 대한 김정정(2008)이 있다. 하지만 아직 학술논문에 대해서는 김정남(2012)에서 ‘-고 있-’이 보다 추상적 의미를 나타냄을 지적했을 뿐 그 외 시상 표현의 담화적 기능을 다룬 연구는 없다.

학술 텍스트는 문어 텍스트에 속하나 그중에서도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학술 텍스트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참고 문헌, 초록 등의 기생 텍스트나 인용, 각주 등의 장치를 갖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학술 텍스트가 특정 맥락과 목적에서 엄정한 담화 공동체의 규약 가운데 발달하여 왔음을 보여준다. 신지연(2013)에서는 이러한 텍스트적 장치들이 과학적 연구의 전통에서 파생된 경향이라고 보고 있다. 즉 학술논문에서는 연구의 질차를 자세히 기술하여 객관성을 추구하며, 윤리적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연구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등의 형식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학술 텍스트는 다른 문어 텍스트인 기사문, 설명문, 편지, 수필 등과 확연히 다른 맥락적, 구조적, 언어적 특성을 갖게 되고 시상 표현의 사용 역시 기존의 문어와 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술논문에서 시상 표현의 사용을 살피는데 목적을 두므로 기존의 다른 장르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분석의 전제 및 요인, 방식을 달리한다. 먼저 학술 텍스트의 특성을 파악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전공 분야나 연구에서 취한 연구 방법 등에 따라 텍스트 구조와 문체적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험적 연구에 해당하는 분야의 학술지 1종으로 연구 대상을 좁혀 시상 표현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학술논문은 다른 장르와 달리 텍스트 구조가 매우 명확하여 구조상의 위치에 따라 텍스트의 목적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따

라서 학술논문의 거시구조와 이동마디를 중요한 맥락 요인으로 보고, 텍스트 구조별 ‘중심 시제’를 살핀 뒤 각 시상 표현의 담화적 기능을 해당 텍스트 구조 맥락 안에서 살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어 학술논문의 시상 표현의 기능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른 문어 텍스트에서의 양상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면서도 장르 맥락에 따라 변별적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최근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도 의의를 갖는다. 학술논문에서 시상 표현의 사용과 그 기능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학술논문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언어적 측면에 대한 내용 지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II. 논의의 전체

### 1. 문어 텍스트에서 시상 표현의 담화적 기능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학술논문의 시상 표현에 대한 연구는 드물지만 비교적 가까운 텍스트 유형으로서 보도문 등 여러 비문학 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존재한다. 학술논문과 같은 문어이면서 격식적 성격을 갖는 보도문의 시상 표현을 살핀 문숙영(2007)에서는 보도문의 시상 표현이 구어체의 시상 표현과 명백히 차이를 보였다. 보도문에서는 ‘-었었-’의 출현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대신 ‘-(으)니 바있-’의 표현이 나타났고, ‘-겠-’도 미래로서의 기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신 ‘-(으)로 전망되-’, ‘-(으)로 예상되-’ 등의 표현으로

대치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즉 격식적 문어 장르에서는 일상적 구어에서와 과거, 현재, 미래 등이 다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듯 이 연구에서 문어에서의 시제 사용 양상은 구어와는 명백히 다르며 텍스트 유형에 따라서 전통적인 시제의 사용보다 다른 유사 표현이 선호되기도 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특히 문어 텍스트에서 ‘-고 있-’의 역할에 대해서는 문숙영(2008)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 문숙영(2008)에서는 보도문에서 ‘-고 있-’의 출현이 압도적으로 높아 ‘-느-’와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느-’가 역사적 현재, 미래 상황, 해설적 현재, 보편적 진리 등 다양한 기능을 함에 따라 ‘현재성’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자 ‘-고 있-’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학술논문의 시상 표현에 대한 유일한 연구인 김정남(2012)에서도 ‘-고 있-’의 양상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중 언어학>에 실린 학술논문과 세종 말뭉치의 이야기 부분 말뭉치를 대조적으로 분석한 결과, 학술논문에서는 실제 시간 지시 기능이 아니라 소설에 나타나는 ‘시제 이동’과 유사한 용법으로 ‘-고 있다’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학술논문에서의 ‘-고 있-’은 소설에서와는 달리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결과 지속상’으로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들 관련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전통적인 시제 표현인 단순 현재<sup>1)</sup>와 과거 시제 ‘-었-’, 그리고 상 표현 ‘-고 있-’, 이 세 가지 표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 담화적 기능을 살피도록 하겠다.

1) 현재 시제는 ‘-느-’ 또는 영형태로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고 있-’과 구별하여 ‘단순 현재’로 지칭할 것이다. 문숙영(2008)에서도 연구 대상에 ‘-고 있-’을 포함시키며 이러한 지칭의 방식을 취한 바 있다.

## 2. 텍스트 구조에 따른 시상 기능 분석

지금까지 시상 표현의 담화적 기능에 대해 수행된 연구들은 김홍수(2005)에서도 제시하듯 다양한 개념 아래 분석되었다.<sup>2)</sup> 즉 담화적 기능 분석에 사용된 개념들은 정보 구조, 인지 언어학적 측면, 담화 유형, 관점상, 소설의 시점, 주-사건 시제 등 다양한 층위에 걸쳐 있다. 그러나 김홍수(2005: 763)에서도 지적하듯, 이러한 다양한 개념들의 유기적 관련성을 찾는 것과 담화의 유형·성격, 맥락에 따른 기능을 살피는 것이 아직 과제라고 할 수 있다.<sup>3)</sup> 본고에서는 특히 학술논문의 시상 표현 분석에 있어서는 학술논문이 갖고 있는 다층적 텍스트 구조에 따른 기능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김홍수(1999)에서는 소설에서 구조상의 위치에 따라 언어적 특징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서두, 전개·발전, 위기, 절정, 결말 부분에서 대화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두에서 대화가 나타나는 것은 유표적인 사용으로 주의 환기나 정황 설정, 주제나 갈등 암시, 문제 제기(김홍수, 1999: 83) 등의 기능을 나타낸다. 한편 전개와 발전 부분에서는 사건이나 정황을 제시하는 다소 무표적인 기능을 하며, 절정에 있어서도 극적 사건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면서

2) “전체성·단면성, 외면·내면성, 거리감과 직접성·현장성, 인지면에서 현저성에 따른 배경과 전경, 정보·담화 구조 면에서 정보의 중요도와 성격, 담화 유형과 흐름, 담화 텍스트·화용 기능 면에서 강조와 전환, 시점 이입과 추이, 서술자의 개입과 주관·객관성” 등이 논의된 바 있다고 하고 있다(김홍수, 2005: 759).

3) 김홍수(2005: 763)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첫째, ‘-느’계 현재 시제, 미완료 상과 관련된 양태 의미를 핵심 고리로 ‘-느’계 담화·텍스트 현상의 여러 측면들이나 설명법들 간에 갖든 유기적 관련을 찾고, 특히 전경성과 현장성의 정체를 밝히는 데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둘째, ‘-느’계 담화·텍스트 기능의 의의와 양상이 담화의 유형·성격·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느’계 관련 담화의 유형과 맥락은 더 정밀하게 세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감을 드러내 사건을 전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텍스트 구조에 따라 특정 언어적 요소들의 선택이 다름은, 텍스트에서의 언어적 요소의 분석에 있어서 해당 텍스트의 구조에 따른 기능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학술논문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텍스트 구조 내에서의 해당 언어 요소의 기능을 분석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김홍수(2005)에서는 텍스트의 요소 중 상황의 유형, 즉 ‘사태’ 상황과 ‘서술’ 상황인가에 따라 현재 시제가 갖는 담화적 기능이 다름을 살폈다. 여기서 사태는 소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며, 서술은 이에 대한 인물의, 또는 서술자의 ‘이야기’를 말한다. 사태에 대해 서술할 때의 단순 현재는 주로 ‘전경화’의 기능을, 서술 부분에서는 주로 ‘설명과 논평’의 기능이 나타났으며, 각 상황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된 기능이 나타났다.<sup>4)</sup> 이러한 ‘사태’와 ‘서술’의 상황 구분은 텍스트 하부 구조를 보다 의미 중심으로 분석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술논문의 경우 고유의 텍스트 구조가 상대적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나 구조에 따른 분석이 쉽다고 할 수 있다. 즉 과학적 연구 방법의 영향에 따라 전공을 막론하고 많은 실험 및 조사 연구에서 서론, 연구 방법, 결과, 논의 및 결론으로 이어지는 IMRD(Introduction, Method, Result, Discussion)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sup>5)</sup> 또한

4) 김홍수(2005)에서 나타난 현재 시제의 사태와 서술에 대한 기능은, 먼저 사태에 대해서는 사태 시간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일반적 습관적 상황, 과거의 사태인데 현재로 서술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서술의 경우에는 서술자가 서술 상황과 경위에 관해 서술하는 경우, 배경 담화에서 정보 제공, 사실 설명을 하는 경우, 사태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의 경우로 나타났다.

5) 물론 이러한 구조에 따라 분석하기 어려운 분야도 많이 때문에, 학술논문의 전공 및 논문의 유형을 통제하면 텍스트 구조에 따른 문법 요소의 기능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3장 참조).

학술논문의 구조는 앞서 제시한 IMRD의 거시적 구조 안에서도 그 하위 구조가 ‘이동마디’라는 이름으로 연구되어 온 바 있다. 스웨일즈(1990)를 위시한 학문 목적 영어 교육의 담화분석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시구조의 하위 구조를 ‘이동마디(move)’로 보고 분석하는데, 이동마디란 ‘의사소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의미적, 기능적 단위’로 정의된다. 한국어 학술논문에 대해서도 이동마디 분석에 대한 박은선(2005) 등 일련의 연구들이 있어 이를 참조하여 텍스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텍스트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은 학술논문이라는 장르의 특성에 따른 필연적인 방식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거시구조-이동마디’ 개념에 기반한 텍스트 구조의 틀은 3장에서 밝히도록 하겠다.

### 3. 텍스트별 중심 시제의 개념

한국어의 여러 텍스트 유형에서 시제 사용의 양상을 비교한 김민영(2012)에서는 각 텍스트 유형에 따라 ‘주-사건 시제’가 다름을 보이고 있다. 즉 환영사, 설교문, 성명서 등의 주-사건 시제는 현재이며, 독후감, 진정서, 항의문 등은 과거, 일기예보문, 선거광고문, 학업계획서는 미래 시제를 갖는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미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텍스트에서 주-사건 시제를 중심으로 시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외의 시제들을 사용한 경우는 유포적으로 전략적 이유에 따라 사용한 경우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시제성이 텍스트 유형과 긴밀히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텍스트의 맥락, 목적에 따라 다른 주-사건 시제를 사용하며, 또한 시제 분석을 통해서 해당 텍스트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도 학술논문의 텍스트 구조, 즉 이동마디 별로 먼저 주-사건 시제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직 학술논문의 전체적인 시상 표현의 특성이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먼저 각 이동마디별 주-사건 시제가 텍스트 구조별 목적과 특성과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학술논문에서 시제 사용의 거시적 양상을 파악하게 해 주어 학술논문의 텍스트 구조별 분석의 바탕이 될 것이다. 다만 학술논문에서 시제는 ‘사건’에 대한 시제만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필자의 서술에서의 시제 사용이 더욱 두드러지므로, ‘사건’ 개념은 배제하고 ‘중심 시제’라는 용어로 고쳐 사용하도록 하겠다.

###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앞 장의 논의에 따라 학술논문의 텍스트 구조를 단위로 삼아 시상 표현(단순 현재, ‘-고 있-’, ‘-었-’)의 출현과 그 기능을 살피되 텍스트 구조별로 살피도록 하겠다. 앞서 2장의 전체에 따라 설정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1) 학술논문의 ‘-었-’, 단순 현재, ‘-고 있-’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살핀 다른 문어 텍스트(보도문, 소설)과는 다른 학술논문 맥락에서 담화적 기능을 보일 것이다.
- 2) 학술논문의 텍스트 구조별로 중심 시제가 다를 것이다.
- 3) 학술논문의 텍스트 구조별로 각 시상 표현의 담화적 기능이 다를 것이다.



분석 대상 논문은 사회복지학 전공 분야의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사회복지학 분야는 사회과학 분야에 해당하여 인문학, 공학 분야 등 다른 학문까지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양상을 파악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도 여러 연구의 경향이 존재하나 통계 연구가 주로 게재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학>(KCI 등재 학술지)을 선정하였다. 양적 연구를 취한 논문은 이론적 연구, 문예 비평적 연구나 내러티브, 인터뷰, 구술사 등의 질적 연구 방법을 취한 논문에 비해 IMRD 구조로 살피는 것이 가능하여 분석에 용이하다. 또한 양적 연구는 객관성을 추구하는 특성상 거시구조 내에서도 논의의 전개 방식이나 사용하는 표현에 있어서도 상당히 전형화된 구조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장에서 논의한대로 학술논문의 언어 사용에 관여되기 마련인 여러 변수(논리 전개 방식, 필자의 문체 등)를 통제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학술지에서 2014년에 게재된 논문 중 각각 5,500어절 정도의 분량이 되는 논문 세 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시상 표현의 담화적 기능을 살피려면 전후 맥락을 살펴 질적으로 용례를 분석하여야 하므로 양적으로 분석 대상 논문 편수를 늘리기보다 적은 수의 논문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대로 학술논문의 텍스트 구조인 거시구조와 이동마디 구조에 따라서 분석할 것이다. 한국어 학술논문의 이동마디 구조에 대한 연구는 박은선(2005), 김영규·이은하(2008), 윤여옥(2012), 이수연(2012), 이주희(2012)에서 학술논문 거시구조의 이동마디가 규명되어 온 바 있어 그 결과를 활용할 것이다.<sup>6)</sup> 이 연구들은 모두 한국어교육 전공 논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6) 박은선(2005)을 수정한 김영규·이은하(2008)에서 제시된 서론의 이동마디, 윤여옥(2012)에서 제시된 연구 방법의 이동마디, 이수연(2012)에서 제시된 결과의 이동마디,

만 본 연구에서 변형하여 활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었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들을 살핀 결과 2장에서 공히 ‘이론적 연구’로서 ‘선행연구 정리를 통한 이론적 토대 정립’의 구조가 나타나고 있었기에 이를 추가하였다. 또한 ‘3. 연구 방법’의 경우 ‘3-1 연구 설계 및 절차의 제시’는 별도로 나타나지 않았고 ‘3-3 자료 분석 절차’가 ‘변수의 규정 및 검증 모델 제시’로 세분화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이 모두 통계적 연구를 사용하고 있어 여러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혼합적 연구를 주로 취하는 한국어교육 분야와는 차이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수정한 텍스트 구조의 틀은 다음과 같다.

<표 1> 학술논문의 텍스트 구조

거시구조	이동마디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연구사)
	3	연구의 특징 및 연구의 의의
2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정리를 통한 이론적 토대 제시
3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절차 묘사하기
	2	자료 분석 절차 설명하기 - 변수 정의
	3	자료 분석 절차 설명하기 - 분석 방법
4 결과	1	메타 텍스트적인 정보의 제시
	2	결과의 제시
	3	결과의 논평
5 결론	1	배경 정보의 제공
	2	결과/발견
	3	연구의 의의 평가
	4	연구의 제한점 및 제한

이주희(2012)에서 제시된 결론의 이동마디를 통합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 1) 자료 가공: 연구 대상 논문을 텍스트 파일로 가공하고 각주나 인용 등 분석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한다.
- 2) 대상 항목 표시: 각 논문에서 단순 현재, ‘-고 있-’, ‘-었-’의 출현을 텍스트상에 표시한다.
- 3) 중심 시제 파악: 텍스트 구조별로 중심 시제를 파악한다. 이는 가설 2)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중심 시제 파악의 경우에는 ‘-고 있-’은 상 표현이므로 배제하고, 단순 현재인지 과거인지를 중심으로 살피게 된다.
- 4) 담화적 기능 분석: 먼저 각 논문별로 단순 현재, ‘-고 있-’, ‘-었-’ 형태별로 담화적 기능을 살피고, 세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담화적 기능을 선정한다. 1차적으로 추려진 담화적 기능에 대해 실제 사례를 수집하며 분석 내용을 정교화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은 제외시켰으며 전후 문맥과 출현 위치에 따라 개별 기능의 특성을 개념화한다.

## IV. 분석 결과

### 1. 텍스트 구조별 중심 시제

분석 대상 논문 세 편은 연구자가 선택한 의도와 맞게 모두 5장 체제를 가지며, 내용상으로도 유사한 구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구조별 중심 시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먼저 서론에서는 현재 시제를 중심 시제로 하고 있었다. 이는 서

론에서 해당 연구의 필요성을 주창하며 다소 주관적으로 독자를 설득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기서 일부 나타나는 선행연구(연구사) 부분의 경우에도 과거 시제보다는 현재 시제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는 과거의 선행연구를 보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의 당위성의 근거를 찾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론적 배경의 부분에서도 현재가 주로 사용되었고 부분적으로 과거와 교차되어 사용되는 부분이 있었다. 연구 방법 부분부터는 중심 시제가 바뀌어,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어 사용되었지만 주로 '-었-'이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필자인 연구자가 이미 수행한 연구로서 전시성을 가지므로 '-었-'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는 역시 단순 현재로도 기술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보다 '-었-'으로 기술됨으로써 이미 수행된 사건임을 강조하며, 구체성을 띠는 행위임이 드러난다. 다음 (1)에서 드러나듯이 중심 시제는 '-었-'이라고 할 수 있다.

- (1)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학교적응척도는 민병수가 이전 척도자료를 보완하여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 문항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자료에,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토대로 청소년에게 학교에 대한 지각을 묻는 학업태도와 학생 개인의 교과목 평균성적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학교적응척도에는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업태도, 학업성적의 총 6개 요인이 포함되었다. 이 중 학습활동에는 '학교수업시간이 재미있다', '학교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며, 학교규칙은 '당번이나 1인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복도나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sup>7)</sup>

결과 부분에도 방법과 마찬가지로 중심 시제는 ‘-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소설의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사태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은 현재로 나타나고 있었다. 여기서 ‘결과의 논평’ 이동마디는 분리되지 않고 ‘결과 보고’ 부분과 섞여서 나타나 시제 이동의 양상을 보였다.

- (2)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70%를 차지했으며, 교육수준은 미취학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취학자녀가 없는 여성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에 비해 중졸이하의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10세 이상가구원의 수는 2004년과 2009년 모두 평균 3명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10세 미만 자녀의 수를 고려할 때 전체 가구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미취학자녀의 수는 2004년 평균 1.12명 2009년 평균 1.33명으로 2009년에 다소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지역 유형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보다 미취학자녀가 없는 여성이 농가인 경우가 많았다. 주거유형은 전체여성의 경우 자가, 전세, 월세, 무상주택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미취학자녀가 없는 여성이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보다 자가인 비중이 높았다.

결론 부분은 ‘배경 정보의 제공’, ‘결과/발견’에서는 과거로 사용되고, ‘연구의 의의 평가’ 부분은 현재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이후 인용문에서 ‘-고 있-’을 포함한 현재는 굵게 하고 밑줄로, ‘-었-’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중요한 접속 부사의 경우 □로 표시하였다.

〈표 2〉 텍스트 구조별 중심 시제

거시구조	이동마디		중심 시제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의 목적	현재
	1-2	선행연구(연구사)	현재
	1-3	연구의 특징 및 연구의 의의	현재
2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정리를 통한 이론적 토대 제시		현재
3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및 절차의 제시	과거
	3-2	자료 수집 절차 묘사하기	과거
	3-3	자료 분석 절차 설명하기(변수 정의/ 분석 방법)	과거
4 연구 결과	4-1	메타 텍스트적인 정보의 제시	과거
	4-2	결과의 제시	과거
	4-3	결과의 논평	현재
5 결론	5-1	배경 정보의 제공	과거
	5-2	결과/발견	과거
	3	연구의 의의 평가	현재
	4	연구의 제한점 및 제한	현재

이는 단지 세 논문만을 분석한 결과로 통계 방법을 취한 연구가 모두 이러한 중심 시제를 갖는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핀 학술지의 논문 세 편에서 모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사회복지학 분야의 통계 연구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심 시제의 사용이 전형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서 연구 방법 및 결과, 결론의 연구 내용 요약 등의 부분은 중심 시제가 과거이고, 서론, 이론적 배경, 결과에 대한 논평, 연구의 의의 및 평가, 제한점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 나타난다. 이는 소설에 대한 선행연구(김홍수, 2005)에서, 발생한 사건의 기술에 대한 부분은 과거로 나타나고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 부분이 현재 시제로 나

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보고’와 ‘논평’이 교차되는 지점은 특히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부분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학술논문에서 필자가 자신이 수행한 연구 내용을 보고하고, 또 논평을 덧붙이기도 하는데, 이때 각각 다른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각 표현의 기능을 살펴면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

## 2. 시상 표현의 담화적 기능

앞 절에서 살핀 중심 시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었-’, 단순 현재, ‘-고 있-’이 갖는 담화적 기능을 보다 상세히 살펴 보겠다.

### 1) ‘-었-’

전체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앞서 중심 시제의 분포에서도 나타나듯이 단순 현재가 필자의 목소리를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선행연구의 결과나 실제 세계의 사태에 대해서는 ‘-었-’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론, 이론적 연구, 연구 방법, 결과, 결론, 즉 논문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시제 이동의 현상이다.

- (1) ①개인요인으로는 성별, 인종 등의 인구학적 요인들을 비롯해서,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문제 등이 포함된다. ②대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학교에 결석하고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또한 백인보다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에서 더 높은 결석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④학교결석은 또

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⑤Kearney는 학교결석이 학생들의 정신 건강 정도를 나타내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⑥실제로 학교결석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더 심각한 불안, 우울, 신체화, 행동장애, 주의집중 문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⑦그러나 이와 동시에 몇몇 다른 연구들에서 학교결석 청소년 중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향후 더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위 (3)은 ‘2. 이론적 배경’에 나타나는 부분인데, 주된 논지는 단순 현재 시제로 제시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선행연구의 사실 부분은 ‘-었-’으로 나타난다. 단순 현재 시제를 사용한 ①, ③, ④, ⑦ 이 주된 논지라는 사실은 이들 문장에 논지의 흐름을 나타내는 ‘또한’, ‘그러나’와 같은 문두의 접속부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도 나타난다. 즉 단순 현재 시제는 필자의 주된 논지를 나타내는 ‘주관성’을 나타내고, ‘-었-’은 구체적 사태의 보고 역할을 한다. 이는 ‘3.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4) ①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②여성의 노동공급에 있어서 배우자 유무와 가구 내 지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에 해당한다. ③이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2차 소득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④여기에 가구원의 수, 미취학자녀의 수도 여성의 생활시간에 영향을 준다. ⑤생활시간자료의 경우 자녀의 수를 조사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수를 대신하여 미취학자녀의 수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유무를 통



제변수로 적용하였다. ⑥이외에도 요일, 농가여부, 거주지역, 주거 유형 등을 통제하였다. ⑦여기서 주거유형은 가구소득 변수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자가, 전세, 월세, 무상주택으로 구분하였다.

- (5) ①보육료 지원 확대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났으므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무작위 할당을 전제로 하는 자연실험이 불가능하다. ②따라서 본 연구는 준실험설계의 방법으로 보육료 지원 확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처치집단을 설정하였다. ③처치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은 미취학자녀 유무와 중하위소득 가구 여부를 사용하였다.

(4, 5)에서 나타나듯이 중심 시제로는 ‘-었-’이 사용되어 이미 수행된 연구 절차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하며 구체적으로 수행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어째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는가에 대해 당위성을 부여하는 부분(4-②, ④), (5-①)에서는 단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 (6) 세 번째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형편에 대한 인식이 낙관적이고 월평균 저축액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직종에 있어 소득수준이 높은 전문직 직종에서 자산형성사업에 대해 보다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이 소득 중 일정 부분을 저축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산으로 축적하기 위해서는 저축이 가능한 정도의 소득수준이 전체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자산형성사업이 최하위층에게 자산을 축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저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 (7) ①<표 6>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을 처치집단으로 한 모형

1의 토빗회귀분석 결과이다. ②분석결과,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③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종속변수 잔차항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Rho 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SUR을 적용한 토빗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보육료 지원 확대의 영향을 반영하는 미취학자녀 유무, 중하위소득 가구 여부, 보육료 지원확대 전후 변수에 대한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노동시간 39.43, 돌봄시간 ?16.18, 가사시간 ?6.42, 여가시간 2.73이었으며, 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의 회귀계수만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6, 7)은 ‘4. 연구 결과’ 부분인데, 주된 시제는 여전히 ‘-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논평 부분(6-③, ④), (7-①)에서는 단순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이는 (7-①)에서 나타나듯 문단 첫 문장에서 논지를 이끄는 적극적인 위치를 점하기도 하고, (6-③, ④)에서 나타나듯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해 논평을 덧붙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요약하면, 중심 시제가 단순 현재일 때는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사태의 기술을 담당한다. 다소 주관적인 필자의 목소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주장을 현재 시제가 담당하고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었-’이 담당한다. 이러한 양상은 ‘-었-’이 중심 시제인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구체적인 통계 연구의 방법과 결과로서 주된 사실의 보고 기능을 ‘-었-’이 수행하는데, 반면 단순 현재 시제는 교차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필자의 평언(comment)을 담당한다.

이러한 ‘-었-’과 단순 현재의 기능 분담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면, 이는 필자가 ‘보고’할 때와 ‘논평’할 때 다른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텍스트 내에서 필자의

목소리(voice)란 바흐친의 ‘다성성’과 ‘대화성’의 개념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이는 동일한 필자이면서도 텍스트 내에서 동일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층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다.<sup>8)</sup> 학술논문에서의 필자는 텍스트의 진행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시체의 교체를 통하여 ‘보고자’와 이에 대한 ‘논평자’의 두 다른 목소리가 교차하여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 2) 단순 현재

단순 현재 시제는 앞서 ‘-었-’과의 기능 대비에서 살폈듯 논평이나 주장 등 필자의 주관적 목소리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필자의 목소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1. 서론’과 ‘5. 결론의 연구 의의 평가(5-3), 연구의 제한점(5-4)’이다.

- (8) 국내에서도 자산형성사업은 그 명칭만 달리하여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운영되어 왔다. 특히 최근의 신자유주의적 정책흐름에 따르면 이와 같은 형태의 사업방식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산형성사업의 효과와 운영 효율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국내에서 사업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형성사업과 관련된 심층적인 연구결과들은 매우 **드물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형성사업인 ‘희망플러스통장’ 참여자들을

8) 텍스트에서 목소리의 다성성에 대해서는 남가영(2009)에서 ‘-는 것이다’를 분석하며 제시한 바 있다. 남가영(2009)에서는 ‘-는 것이다’가 선행 문장의 내용을 환원하여 제시하며 마치 타인의 목소리처럼 들리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능은 특히 보도문이나 학술 텍스트 등 “타인의 생각이나 말, 외부의 정보를 적절히 원용하여 그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논리를 펼쳐나가야 하는 논증적 텍스트”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대상으로 2009년부터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 종단적인 데이터를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관련 연구들이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는 것에 치우치고 있어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사업 참여자들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종단적인 분석방법을 이용한 연구 또한 이루어진 바가 없어 개인의 행태 및 인식 변화의 원인들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자산형성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종단적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이용해 보다 면밀하고 다양한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보다 과학적인 결과가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 (9) 지금까지 밝혀진 학교결석과 관련된 많은 예측요인들을 비추어볼 때, 학교결석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이질적인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학교결석이 복잡하고 이질적인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밝힌 많은 연구들에서 정작 학교결석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들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가정하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학교결석을 연구하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학교결석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학교결석 청소년을 암묵적으로 동질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학교결석 청소년들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학교결석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효과적인 예방적 개입을 추구하는 데도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결석 청소년이라도 청소년기의 주요 사회화 단위인 학교와의 유대 및 적응 정도에 따라 발달적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학교결석 청소년이 학교적응 및 유대에 따라 이질적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학교결석 청소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단순 현재 시제는 현장성, 일반화의 속성을 가지면서 화자의 주관적 진술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필자의 논지를 펼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상의 교체보다는 오히려 즉 ‘-(으)ㄴ 수 있-’, ‘필요가 있-’, ‘-되-’ 등 양태성을 나타내는 어휘나 문법 요소의 사용과 교체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소설과는 달리, 학술논문은 시간 요소보다도 해당 명제나 사건에 대한 필자의 태도, 즉 양태성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장르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주관적인 필자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역할 외에도 단순 현재는 다음과 같이 현 논의의 상황을 소개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10)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1)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 (12) <표 6>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을 처치집단으로 한 모형1의 토빗회귀분석 결과이다.
- (13) 표<2>는 토빗회귀분석에 투입한 변수들을 정리한 것이다.

학술논문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른바 메타 담화에는 주로 단순 현재가 사용된다. 이는 전형적인 문장 양식이기도 하나, 여기서 현재 시제는 동시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현장성을 나타낸다. 여기서 현장성을 띤, 필자의 안내자로서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단순 현재는 다음과 같이 연구의 전제를 제기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 (14) 이 때 Y는 개인의 종속변수 값이며, P0는 각 개인의 종속변수 값

의 평균이며, E는 개인의 시간에 따른 종속변수의 차이이다. 2수준에서 각 개인의 종속변수 값의 평균은 다시 측정시점 전체의 개인의 종속변수 값의 평균B과 각 개인별 종속변수 값의 편차R로 이루어진다.

- (15) 정책효과는 시기더미, 미취학자녀 유무 더미, 중하위소득 가구 여부 더미의 상호작용항이다.

(14, 15)는 연구 방법에 자주 나타나는 변수 지정의 문장이다. 이는 현재 시제의 일반화 속성과 연관된다. 본 연구의 전제를 현재 시제를 통해 연구의 확고한 전제로서 일반화시켜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재 시제의 일반화는 명제에 대한 단언적 양태성으로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 (16) 일반적으로 학교결석이란 학교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와 같이 학교결석의 정의는 비교적 단순명료하지만, 학교결석의 이유와 범위에 대해서는 그다지 간단하지 않다. 연구자 및 학교마다 학교결석을 분류하고 측정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학교에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부모나 교사의 허락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사유적 결석과 비사유적 결석으로 구분한다.

- (17) 사회발달모델의 관점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경우, 주요 사회화 단위와의 애착 및 유대 형성이 발달행동과 적응을 결정짓는다고 본다. 이 때 아동이 주로 유대관계를 맺는 사회화 단위는 어느 하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성장·발달함에 따라 변한다. 즉, 유아기와 초기 아동기까지는 가족이 주요 사회화 단위라면, 후기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들어 따라 학교가 주요 사회화 단위가 된다. 주요 사회화 단위와의 유대는 곧 그 사회화 단위가 요구하는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도록 만들며, 이러한 특성이 아동

및 청소년으로 하여금 문제행동을 자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16, 17)은 ‘2 이론적 배경’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단순 현재 시제의 연속을 통해 해당 이론의 내용을 일반화시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화는 해당 명제에 대한 필자의 단언의 양태성과 연결된다. 즉 여기서 명제에 대한 필자의 확신의, 단언의 어조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화의 특성은 현재 시제에서도 다른 양태 관련 보조용언 없이 단순 현재만으로 일관하여 얻게 되는 효과로 보인다. 즉 여기에 가능성이나 추측에 관련된 양태성 관련 표현이 관여한다면 이러한 일반화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sup>9)</sup> 즉 단순 현재는 필자의 주관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양태 표지 없이 사용되었을 때 강한 확신성을 드러내는 단언의 양태성을 드러낼 수 있다.

정리하면 학술논문에서 단순 현재 시제는 기본적으로 필자의 논지를 이끌어가는 목소리를 드러내면서, 논의의 개괄적 소개나 명제 등을 드러낼 때 ‘동시성’, ‘현장성’의 기능을 한다. 또한 현재 시제의

9) 이러한 양태성 표지 없는 단순 현재 문장의 단언성은, ‘-(으)르 수 있’, ‘-으로 보이-’ 등의 양태성 표지가 사용된 부분과 비교해 보면 더욱 잘 드러난다. 자세한 논의는 본 연구의 대상인 시상 표현의 역할에서 벗어나므로 하지 않기로 한다.

a. (결과에 대한 평론 부분에서)우선 희망플러스 통장의 유용성의 경우 직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준변수인 경영·관리·전문·사무직에 비해 판매·서비스직과 숙련·기술·단순노무직의 경우 희망플러스 통장이 자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전문사무직등에 비해 열악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희망플러스 통장이 자립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았는데, 직종에 대한 소득의 불안정성이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즉, 참여자들은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에 참여하면서 점차 생활형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산형성사업이 지속적인 자산의 축적을 통해 자신감과 자기존중, 안전한 느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일반화’시키는 특성이 논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나 명제를 단언적으로 나타내는 데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태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즉 학술논문에서 단순 현재는 담화적 기능에 있어서 시간 관련 지시 기능보다도 필자의 태도와 관련된 의미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 3) ‘-고 있-’

먼저 전체적으로 ‘-고 있-’의 빈도는 ‘-었-’, 단순 현재에 비해서 빈도가 현저히 낮았으나(28회 출현), 단순 현재, 과거 시제 가운데서 독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먼저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고 있-’은 ‘2. 이론적 배경’까지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연구 방법, 결과, 결론’ 부분에서의 사용은 3회로 사용 빈도가 매우 낮았다. 물론 앞서 ‘-고 있-’이 단순 현재 시제와 매우 긴밀하게 결합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연구 방법’, ‘연구 결과’에서는 중심 시제가 ‘-었-’이기 때문에 빈도가 낮을 수 있다고는 해도, ‘5. 결론’의 후반부에서, 중심 시제가 단순 현재인데도 ‘-고 있-’의 출현이 매우 낮았다. 이는 ‘-고 있-’이 기본적으로 현황 보고, 제시 등의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부에서는 사태의 제시, 보고보다도 이에 대한 주관적 논평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단순 현재 시제가 나타나더라도 ‘-고 있-’은 별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먼저 ‘-고 있-’의 담화적 기능은 문숙영(2008)에서도 제시했듯이 기본적 상적 의미인 ‘진행상’의 의미에 따라 기본적으로 현재성, 진행성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8) 2013년 현재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아동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약 52,000여명 정도의 요보호 아동이 **참여하고 있다**. 2007년에는 서울시에서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09년부터 현재까지 ‘희망플러스통장’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 (19) 생활형편에 대한 인식의 경우에는 시간과 소득, 직종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우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재의 생활형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8)에서는 논의의 배경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세계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19)에서는 결과 보고에서 ‘-고 있-’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사태 보고에 있어서 현재성이 강조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 있-’의 현재적 보고의 기능은, 명제에 대한 특정한 양태적 태도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 (20) 즉, 학교결석을 연구하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학교결석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학교결석 청소년을 암묵적으로 동질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 (21) ...세 번째로, 성별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저축행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Furnham의 연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저축을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22) ...그러나 이처럼 학교결석이 복잡하고 이질적인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밝힌 많은 연구들에서 정작 학교결석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들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가정하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학교결석을 연구하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학교결석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학교결석 청소년을 암묵적으로 동질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학교결석 청소년들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학교결석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효과적인 예방적 개입을 추구하는 데도 장애가 될 수 있다. …

(20, 21, 22)는 ‘2. 이론적 배경’의 용례로, 선행연구의 동향이나 연구 결과에서 ‘-고 있-’을 사용하고 있다. (20)에서는 연구 동향을 현상성 있게 보고하는 데 활용된다. ‘-고 있-’은 찰나적, 순간적 진행뿐만 아니라 보다 긴 시간 범주 내에서의 지속의 기능을 갖는데, 학술논문에서도 이와 같이 한 개별 연구의 성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보다 오랜 시간 범위 가운데서의 경향성에 대해서, 지속성의 의미를 제시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21)에서는 개별 연구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고 있-’을 사용하고 있다. (22)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행연구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 문장이다. 그런데 (22)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필자가 해당 내용의 확실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때 ‘-고 있-’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문어체에서 ‘-고 있-’의 담화적 기능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즉 ‘-고 있-’은 현재 진행 중인 사태의 현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지만, 이렇게 해당 내용에 대한 필자의 태도에 따라서도 사용된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양태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고 있-’이 약한 확실성을 나타내는 양태성을 나타낸다고 본다면, 이는 앞서 살펴본 일반화된 명제, 단언성을 제시하는 단순 현재에 비하여 약한 확실성을 드러내는 표지, 이른바 헤지 표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22)에서도 이미 수행된 연구이지만 ‘-었-’ 대신 ‘-고 있-’을 사용한 것은 사

실로서 고정된 명제로서가 아닌 현재 연구에서 논의 가능한, 다소 비고정적 명제라는 태도가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sup>10)</sup>

즉 ‘-고 있-’의 많은 용례에서 ‘-고 있-’은 단순 현재 또는 과거 시제 ‘-었-’으로 대체되어도 명제 의미상 큰 차이는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는 ‘-고 있-’의 기능이 시간상의 위치나 상적 특성에 있기보다 다른 요소, 명제 내용에 대한 필자의 태도, 즉 양태 측면이 중요한 요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고 있-’이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양태성을 갖게 되는 것은 ‘-고 있-’의 부분성(신언호, 2004)이나 ‘-고 있-’이 갖는 내망상 논의와 관련이 있다. ‘-고 있-’은 사태를 내부에서, 부분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미 완결된 것으로 보는 외망상에 비하여 명제에 대한 약화된 인식 양태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고 있-’은 상적 의미를 땀에 따라 단순 현재, 과거 시제와의 관련성 가운데서 그 기능을 파악하여야 한다. 먼저 두드러지는 것은 현재 시제와의 관련성이다.

- (23) 학교환경은 청소년의 학교출석과 결석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학자들은 청소년의 학교결석 및 학업중도탈락이 학교유대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학교유대감이란 학생들이 학교환경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학교유대감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청소년기에 특히 중요한 발달적 의미를 지닌다.

10) 물론 이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전후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가능한 해석이다. 앞서 용례에서 살폈듯이 이러한 양태성이 아니라 현재성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22)는 ‘2. 이론적 배경’에서 나타난 용례인데 단순 현재를 견지하며 과거 사실에 대해서는 ‘-었-’ 대신 ‘-고 있-’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단순 현재와 긴밀하게 나타나는 양상은 필자가 단순 현재로 나타내는 자신의 목소리를 견지하기 위해서 ‘-고 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 있-’은 과거로까지 목소리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필자의 목소리인 단순 현재 시제 안에서 논의의 층위를 더할 수 있는 전략이 된다. 즉 ‘-었-’을 사용한다면 단순 현재 시제의 논의에서 멀리 가 버리게 되고, 여기서 단순 현재를 사용한다면 이는 단순 현재의 일반화, 단언의 어조를 지속하는 다소 단조로운 텍스트가 되고 만다. 따라서 이러한 ‘-고 있-’의 사용은 필자가 논의의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도 다층적인 전개를 가능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 있-’는 담화를 도입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4)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학자들은 학교결석과 무단결석, 비행을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고, 사유적이든 비사유적이든 잦은 지각과 결석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무단결석이라는 중간단계를 지나 비행 등의 보다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데 일관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Eaton 외는 사유적이든 비사유적이든 모든 종류의 결석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행 등의 위험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그들은 나아가 잦은 학교 결석은 위험 행동으로 빠지는 조기 경고 사인으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결석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예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5) 한편 개인의 시간배분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으로서 다양한 사회적·정책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려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효용극대화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보다 확장된 관점에

서 기혼 여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변화가 기혼 여성의 시간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 (26) Loibl 외는 개인발달계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참여자들이 중도 탈퇴한 가구들보다 가구저축액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자산형성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가구에 경제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게 한다**. //반면 Mills 외의 연구는 개인발달계좌에 참여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주택소유와 같은 자산의 증가, 빈곤율의 차이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개인발달계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캐나다의 자산형성사업인 ‘LeranSave’에 대해 평가한 Leckie 외의 연구도 프로그램 참여자의 저축행위는 빈도가 증가하였으나 순 저축액은 증가하지 않았음을 제시하고 있어 자산형성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다소 **회의적이다**.

위 사례에서 ‘-고 있-’은 문단의 문단을 도입하는 첫 문장에서 화제 도입 및 배경 제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문단을 시작하면서 배경적 내용을 ‘-고 있-’을 통해 제시하고 이후 세부 사항을 ‘-었-’을 통해 제시하거나(24), 주된 논지를 단순 현재로 제시(25)하는 것이다. (26)를 보면 ‘-고 있-’은 다른 주제로 이동될 때마다 등장하는 표지와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입의 기능은 ‘-고 있-’이 가지고 있는 상적 속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상’은 시제 가운데서 역동적인 사건의 양상을 드러내는 범주로, 본격적인 과거 시제나 단순 현재 시제의 논의로 진행되는 서술이나 사태 논의에 대한 도입으로서 기능하기에 적절한 것이다. 김정남(1994, 2010)에서도 시제 이동은 단절, 구분의 역할을 함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도 유사하게 ‘-고 있-’이 현재나

과거로 도입되기 위한 관문의 역할을 함을 볼 수 있는 것이다.<sup>11)</sup>

‘-고 있-’이 단순 현재와 과거 사이에서 역동적으로 존재하는 요소임은, 이들 요소와 함께 나타난 예를 통해 더욱 잘 드러난다.

(27) ...이들 연구의 일관된 결론은 보육지원의 확대가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가사노동 시간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보육지원 도입 혹은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일관되지 않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주보혜는 2003년과 2007년의 노동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확대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저소득가구 여성에게서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정호·홍석철은 ... 로 **나타났다**. ...

(26)의 맥락은 ‘2. 이론적 배경’에서 단순 현재를 주로 하여 논지를 전개하는 부분인데, 주된 논지를 단순 현재로 진행하면서 그와 관련된

---

11) 이러한 상 표현의 도입 가능성은 다른 상 표현인 ‘-아/어 오다’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a.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단기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현물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소득보장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전통적인 형태의 소득보장정책은 빈곤의 원인과 무관하게 현재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적 상태가 빈곤한 경우 소득을 제공하여 빈곤을 벗어나도록 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형태의 소득보장정책이 빈곤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좀 더 근본적인 방식의 변화들이 **시도되고 있다**.//

b. 선행연구들은 학교결석의 부정적 영향을 검증하거나 학교결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예측요인들을 밝히는 데 **주력해 왔다**. 일차적으로 학교결석은 ‘학교와의 낮은 유대감’, ‘지도감독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비행이나 기타 반사회적 위험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다**. 몇몇 연구들에서 학교결석을 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음주, 흡연, 약물남용, 폭력, 위험한 성행위 등을 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는 일종의 ‘교육투자중단’ 행위로 학업 성취 및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

선행연구의 근거로 향해 전이하는 표지로 ‘-고 있-’이 사용되고, 이후 구체적인 사실 근거는 ‘-었-’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고 있-’은 단순 현재와 과거 시제 ‘-었-’과의 연결 고리 역할, 또는 ‘-었-’이 나타내는 세부 정보로 도입하는 관문 역할을 하였다.

정리하면, ‘-고 있-’은 문숙영(2008)에서 나타났듯이 ‘-느-’와 대비되어 더 강한 ‘현재성’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어 사태에 대한 ‘약한 확신성’의 양태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특히 ‘-고 있-’은 상적 표지로서 중심 시제로 사용되는 단순 현재와 ‘-었-’ 가운데서 특정한 담화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단순 현재가 중심 시제인 텍스트에서 배경 상황의 도입 기능, 나아가 단순 현재, 과거 시제로의 도입 또는 그 중간적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술논문에서 시상 표현의 담화적 기능을 살피는데 목적을 두고 통계 연구의 방법을 취한 사회복지학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세 편에서 단순 현재, ‘-고 있-’, ‘-었-’의 사용을 살폈다.

학술논문에서 문법 요소의 기능을 검토하기에 앞서 학술논문의 특성상 거시구조 및 이동마디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이동마디 분석을 활용하여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의 5장 및 그 하위 이동마디에 따라 시상 표현을 분석하였다. 먼저 각 이동마디별 중심 시제를 검토한 결과 서론, 이론적 배경, 결론의 후반부는 현재 시제,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의 전반부에서는 과거 시제가 중심 시제로 기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형태별로 정리해 보면 학술논문 전반에 걸쳐 단순 현재 시제는 필자의 주장, 논평, 메타 발화 등을 담당하였고, ‘일반화’에 따라 강한 확신성을 갖는 양태 의미도 발견할 수 있었다. ‘-었-’은 필자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는 선행연구 보고 또는 본 연구에서 필자가 수행한 세부적 수행 보고에 주로 사용되었다. 즉 현재 시제는 ‘서술’, 과거 시제는 ‘사태’ 기술을 주로 담당한다고 할 수 있었다. 상세한 기능으로는 단순 현재의 경우 ‘주관성’, ‘현장성’, ‘일반화’가 직접적으로 드러났고 과거의 경우는 ‘선시성, 구체성, 배경화, 기정사실화’가 드러났다. 또한 ‘-고 있-’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가능성을 제기하였던 학술논문 맥락에서 ‘-고 있-’의 담화 기능이 담화의 도입, 과거와 단순 현재의 전이 표지, 양태성 표지 등으로 다양하게 드러났다. 즉 ‘-고 있-’은 시간 지시나 실제 물리적인 사건의 양상을 지시하는 기능이 아니라 문어 텍스트에서 고유한 추상적 담화 기능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기능은 문장 문법에 속한 것이라기보다는 담화 및 텍스트 맥락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 살핀 바 학술논문의 시상 표현은 텍스트 구조, 명제 내용에 대한 필자의 태도, 즉 양태성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텍스트 구조별 주요 시제가 달라지고 있는데, 이렇게 텍스트 구조별로 중심 시제가 달라진다는 것은 학술논문이 다른 문어 텍스트에 비하여 매우 고정적이고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텍스트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다. 학술논문은 장르적 특성상 과학적, 논리적 구조를 추구하고 있으며, 폐쇄적 담화 공동체에 따른 엄격한 구조적, 내용적 규약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학술논문에서 사용되는



시상 표현도 텍스트 구조에 따라 그 담화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었-’과 단순 현재는 각각 ‘보고자’와 ‘논평자’로서의 필자의 다성적 목소리를 드러내는 장치로 교차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필자의 다양한 목소리 드러내기는 학술논문의 장르적 맥락에서 기인한 필자의 역할에 관련된 것으로, 텍스트에서 필자와 청자의 의사소통적 측면의 문법적 실현 양상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술논문에서 시상 표현의 기능은 상당 부분 양태성과 관련 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단순현재, ‘-었-’, ‘-고 있-’의 기능을 보면, 단순하게 물리적 시간의 선시, 선후, 진행성보다도 필자의 명제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는 기능들이 두드러진다. 단순현재는 사태에 대한 필자의 서술로서 강한 주관성을 드러낼 때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강한 현장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었-’은 사태의 보고에 사용되면서 기정사실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하였고, ‘-고 있-’은 명제에 대해서 확신성이 낮은 경우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태성 표지로서의 사용은 학술논문의 장르적 특성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 텍스트는 장르의 특성상 소설 등의 장르와 달리 사건의 선후 관계, 서사 구조가 중요한 장르가 아니고, 해당 명제가 나타내는 사실이나 의견에 대한 필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장르이다. 이렇게 필자의 의견이나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장르적 특성상 시상 표현들이 양태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어에서 양태성을 드러내는 표현으로는 보조 용언 외 여러 우언적 구성들이 있으나 시제 역시 학술논문이라는 맥락에서는 양태성의 기능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소설과 몇 비소설 텍스트만을 대상

으로 이루어졌던 시상 표현의 담화적 기능에 대해서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학술논문이라는 맥락에서 텍스트 구조에 따라 중심 시제를 중심으로 살피는 방식을 시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른 장르와는 다른 학술논문 고유의 시상 표현의 기능을 살필 수 있었다. 하지만 대상 텍스트가 특정 전공의 논문에 한정되었고 그 수도 매우 적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향후 보다 다양한 전공과 논문 유형에 대해 양적, 질적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향후 학술논문의 이러한 담화적 요소와 문법 요소의 관련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학술 담론의 특성을 밝히는 의의뿐만 아니라 학문 목적 쓰기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으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1. 자료

- 김동하(2014), 「학교결석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형과 예측요인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66(3), pp.5-28.
- 김혜연(2014),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참여자의 저축행위와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사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6(1), pp.35-59.
- 변금선·허용창(2014), 「보육료 지원 확대가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6(2), pp.101 - 125.

---

\* 이 논문은 2015. 5. 11. 투고되었으며, 2015. 5. 18. 심사가 시작되어 2015. 6. 13.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5. 6. 15.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2. 논저

- 김민영(2012), 「텍스트 유형에 따른 한국어 시제 기능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민영(2013), 「주사건 시간에 따른 텍스트 유형 연구」, 『텍스트언어학』 34, pp.127-156.
- 김영규·이은하(2008),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연구 논문 서론의 장르 분석 연구」, 『이중언어학』 36, pp.43-67.
- 김은정(2009), 「비문학 텍스트에 나타나는 국어 시제 요소의 담화기능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남(1994), 「현대 소설의 지문에 나타나는 시상의 양상과 기능」, 『텍스트언어학』 1, pp.317-340.
- 김정남(2010), 「소설 텍스트 시제이동의 한 가지 새로운 기능 -김훈의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28, pp.1-22.
- 김정남(2012), 「학술논문 텍스트에 나타나는 “-고 있다”의 분포와 용법」,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2 춘계학술대회발표집』 pp.163-172.
- 김홍수(1989), 「국어 시상과 양태의 담화기능」, 『이정 정연찬선생 회갑기념논총』 탐출판사, pp.315 - 333.
- 김홍수(1999), 「소설에서 대화의 분포와 그 담화·텍스트 기능」, 『語文學論叢』 18, pp.81-106.
- 김홍수(2000), 「소설에서 대화 인용의 방식과 양상」, 『語文學論叢』 19, pp.113-142.
- 김홍수(2001), 「소설에서 대화와 인접 지문에 대한 담화론적 해석」, 『語文學論叢』 20, pp.123-142.
- 김홍수(2005), 「소설에서 현재 시제 관련 양태 의미와 그 텍스트 기능」, 『우리말 연구: 서른 아홉 마당』, 태학사, pp.757-789.
- 남가영(2009), 「문법지식의 응용화 방향」, 『형태론』 11(2), pp.313-334.
- 문숙영(2007), 『문어체 텍스트에서의 시간 표현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 -시제어미와 시제 상당 표현 간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연구결과보고서.

- 문숙영(2008), 『시제 어미 및 시제 상당 표현의 사용과 관련한 몇 문제』, 『한국어어미학』 27, pp.45-73.
- 박은선(2005), 『한국어 학위논문 서론의 장르 분석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언호(2004), 『“-고 있-”과 부분성』, 『국어학』 44, pp.159-183.
- 신지연(2013), 『인문학 학술 텍스트의 담화 특징』, 『텍스트언어학』 35, pp.123-144.
- 윤여옥(2012), 『유학생의 한국어 학위논문 쓰기 교육을 위한 학위논문 연구 방법 부분의 장르 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2012), 『유학생의 한국어 학위논문 쓰기 교육을 위한 학위논문 결과 부분의 장르 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희(2012), 『유학생의 한국어 학위논문 쓰기 교육을 위한 학위논문 결론 부분의 장르 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국문초록

### 한국어 학술논문에 나타난 시상 표현의 담화적 기능 분석

이슬비

본 연구에서는 학술논문에서 시상 표현의 담화적 기능을 살폈다. 사회복지학 분야의 통계 연구 논문 세 편에서 단순 현재, ‘-고 있-’, ‘-었-’의 사용을 살피되, 학술논문의 텍스트 구조, 즉 이동마디에 따라 분석하였다. 먼저 각 이동마디별 중심 시제를 검토한 결과 서론, 이론적 배경, 결론의 후반부는 현재 시제,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의 전반부에서는 과거 시제가 중심 시제로 기능하고 있었다. 또한 학술논문 전반에 걸쳐 단순 현재 시제는 필자의 주장, 논평, 메타 발화 등을 담당하였고, ‘일반화’에 따라 강한 확실성을 갖는 양태 의미도 발견할 수 있었다. ‘-었-’은 필자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는 선행연구 보고 또는 본 연구에서 필자가 수행한 세부적 수행 보고에 주로 사용되었다. 단순 현재의 경우 ‘주관성’, ‘현장성’, ‘일반화’의 기능을, 과거의 경우는 ‘선시성, 구체성, 배경화, 기정사실화’의 기능을 하였으며 단순 현재와 ‘-었-’은 교차되며 나타나 ‘논평자’와 ‘보고자’로서의 필자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었다. ‘-고 있-’은 시간 지시나 실제 물리적인 사건의 양상을 지시하는 기능이 아니라 문어 텍스트에서 고유한 추상적 담화 기능을 점하고 있었는데, 담화의 도입, 과거와 단순 현재의 전이 표지, 양태성 표지 등의 기능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다른 장르와는 다른 학술논문 고유의 시상 표현의 기능을 살필 수 있었으나 대상 텍스트가 특정 전공의 논문에만 한정되었고 그 수도 매우 적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주제어] 시제, 상, 학술논문, 담화 기능, 텍스트 구조

■ Abstract

## Discourse Functions of Tense-aspect Expression in Korean Research Articles

Lee, Seul-bi

The purpose of article is to examine the discourse functions of the tense-aspect expression ‘-ko iss-’ and simple present ‘-ess-’ in research articles written in Korean. Three articles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were analyzed. The simple present tense predominated in the articles’ introductions, theoretical background sections, and some conclusions, whereas the sections on methods, results, and summaries were in the past tense. The discourse functions of the simple present were to present main arguments, comments, and meta-discourse, and it was also sometimes used to make strong assertions and generalizations. The past tense was used in reporting the findings of previous research, the research procedures, and the results. The findings of this analysis of Korean research articles reveal that the simple present functions to express subjectivity, vividness, and generalization, whereas the past tense expresses situation in the past, specificity, background information, and factuality. The usage of ‘-ko iss-’ in these written texts was not for deixis of physical time or aspect, but for a more abstract concept to introduce discourse, in transition from past to present, and as a marker of modality. In conclusion, it appears that the discourse functions of tense-aspect expression in Korean research articles differ from those in other genres.

[Key words] tense, aspect, research articles, discourse function, text structure